

아르누보와 현대 장신구의 조형성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박지원*, 박승철**
원광대학교*, 공주대학교**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Formativeness of Art Nouveau and Modern Jewelry

Ji-Won Park*, Seung-Chul Park**
Wonkwang University*, Kongju University**

요 약 아르누보는 예술을 새롭게 개혁하여 젊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상의 양식 모방에 반기를 들어 삶과 주변 환경의 총체적 변혁을 포괄하는 현대적이며 시류에 맞는 양식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장신구 또한 이전의 양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양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소재와 재료의 새로운 시도와 함께 장인적 기술력이 강조된 섬세한 장신구가 선보였다. 아르누보의 양식은 유럽 전반에 각기 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짧지만 강렬하게 20세기 이후 양식의 기초가 되었다. 아르누보 이후의 장신구는 산업과 예술 장신구로 나뉘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아르누보는 장신구를 재화의 가치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로서의 확립을 이끌었다. 아르누보의 다양한 조형성을 통해 표현된 심미적 장신구와 생산력과 기능성에 치우친 단조롭고 귀보석 중심의 현대 장신구 디자인과는 차이를 갖는다. 현대에는 개성과 자아표출을 중시하는 문화 예술의 시대로 창의적,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과 사상을 통해 표현된 아르누보의 다채로운 색상 표현과 다양한 소재와 모티프의 장신구 양식은 현대 장신구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과 디자인 흐름을 이끌어 가기 위한 귀감이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아르누보, 아르누보 양식, 장신구, 디자인, 조형성, 현대 장신구

Abstract Art Nouveau started from the purpose of making art young by reforming art. Rising in revolt against historical style imitation, Art Nouveau was a movement that demanded modern and trend-fitting styles which were embracing general revolution of lif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In jewelry, new styles were tried to be constructed too, breaking from previous styles. Together with new trial of materials, fine jewelry that technical skills of master craftsmen were emphasized on were shown. Styles of Art Nouveau had been diversely developed, fitting to culture of each country in the whole Europe. They were the bases of styles after the 20th century. Jewelry after Art Nouveau repeated development by being divided into industrial and artistic jewelry. They have influenced on a lot of development until modern times. Art Nouveau led jewelry to the establishment of artistic worth, exceeding the worth of good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esthetic jewelry expressed through diverse formativeness of Art Nouveau and modern jewelry designs centered on simple precious jewelry which is biased toward productivity and functionality. Modern times are the times of culture and art that are laying stress on personality and ego-expression and pursue creative and ingenious designs. So, various color expression of Art Nouveau and jewelry styles of diverse materials and motives which were expressed through time period and thought will become examples in leading new design development and design flows of modern jewelry.

Key Words : Art Nouveau, Art Nouveau Style, Jewelry, Design, Formativeness, Modern jewelry

Received 19 November 2013, Revised 19 December 2013
Accepted 20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Seung-Chul Park(Kongju University)
Email: scpark@kongj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목적

장신구(Jewelry)란 신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장식하기 위한 예술품으로 재화의 가치에서부터 종교적 의미, 기념적 의미, 개성의 표출 등의 목적을 갖는다. 장신구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자인의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다. 근대 사회의 대량생산을 시작으로 현대 장신구는 크게 예술 장신구(Art Jewelry)와 산업 장신구(Commercial Jewelry)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의 발전은 시장을 형성하여 소비자와 시장성을 중시하는 산업 장신구의 시장 확대에 이어졌다. 예술적 표현보다 대중성과 합리적인 생산성을 갖춘 디자인 산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진보적 문화 수용과 개인주의적 사회구조에 의해 개성이 중시된 독창적인 디자인과 특별한 의미를 갖춘, 예술성을 띤 장신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장신구의 아르누보 양식의 예술적 표현의 수용 가능성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근대 산업화와 대량생산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탄생된 아르누보(Art Nouveau)는 예술성이 강조되었던 미술 운동으로 짧은 기간 동안 유럽전역에 영향을 주었다. 역사적 양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조형을 창조하고 새로운 양식을 창출한 미술사를 통해 변화를 필요로 하는 현대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아르누보 장신구의 예술적 표현 양식을 고찰하여 현대 장신구 디자인 개발에 적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근대산업화사회의 변화과정에서 탄생된 아르누보의 발생 배경과 개념을 고찰하여 새로운 예술과 가치의 추구를 역사적 의미를 통해 살펴보고, 아르누보의 표현 양식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장신구의 특성과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르누보의 전개 양식은 트후디스 매센(S.T. Modsen)의 저서 <아르누보의 원천>(1956, 오슬로)에서 분류된 4가지 유형(첫째, 상징적이고 역학적인 경향이 강한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구상으로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주를 이룬 양식, 둘째, 낭시파의 성장하는 유기체를 강조한 꽃무늬 양식, 셋째, 글래스고 그룹의 상징적인 경향을 지닌 선적이고 평면적인 양식, 넷째, 구성적이고 기하학적인 양

식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많이 나타난 양식[1])을 토대로 전개된 장신구를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산업 장신구의 디자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대 장신구에서 예술적 표현 가능성과 수용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아르누보의 일반적 고찰

2.1 아르누보의 개념 및 발생 배경

아르누보(Art Nouveau)는 1885년~1915년을 전후로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세기말 미술·공예양식으로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을 뜻한다. 아르누보는 예술을 새롭게 개혁하여 젊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상의 양식 모방에 반기를 들어 삶과 주변 환경의 총체적 변혁을 포괄하는 현대적이며 시류에 맞는 양식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세기가 바뀌는 무렵 산업화가 초래한 위기로 인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의 혁신, 일상의 진부함에서 벗어난 미에 대한 갈구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금 규범들로부터 정신 및 신체적 총체적으로 해방하는 것이 목표였다[2].

아르누보는 총체예술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아르누보는 중세를 염두에 둔 총체예술의 이상, 순수예술과 응용예술의 대립해소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의 양상이 펼쳐졌다. 최상의 목표로 삼은 것은 기능과 미적표현의 통일, 기능과 장식성의 통일, 선과 형태와 색의 조화였다[3]. 따라서 예술의 일부분을 분리한 장식예술이 아닌 총체적 장식예술이라 할 수 있다.

아르누보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벨기에와 프랑스 등 유럽 전역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아르누보의 형성 배경에 있어서 영국의 미술공예운동(Art & Craft Movement)은 아르누보의 전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화와 대량생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은 영국이었다. 역사주의의 양식 혼합 현상으로 인해 미학적 수준이 저하되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질적 불만은 전통적 공예기술의 부활로 이어졌으며,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를 중심으로 중세의 수공업적 전통으로 생산된 장인의 수공품을 장려하였다. 아르누보는 미술공예운동의 수공기술의 가치와 미적 품질의 향상에 영향을 받아 섬세한 표현으로 이어졌

으나 미술공예운동과는 다르게 과거의 형태와 양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미술양식을 창조하고 순수예술과 응용예술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1852년 2월 페리 제독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을 체결한 후, 시류에 민감한 서구의 사교계에서 맹위를 떨친 일본미술은 아르누보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또 다른 원천이었다. 서양 미술가들은 이차원적인 화면구성, 평면적인 원근법, 색면, 윤곽선의 강조를 받아들였으며 특히 유명한 판화가 오브리 빈센트 비어즐리(Aubrey Vincent Beardsely, 1872~1898)의 포스터의 평면적인 장식패턴과 여백의 균형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역동적인 선 등에서 일본미술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4]. 아르누보 장식미술에서도 일본미술의 영향으로 자연의 모티브와 이국적인 색채, 유기적인 주제와 형태 등의 새로운 표현으로 시도되었다.

산업화의 반동으로 태동한 심미주의 운동 역시 아르누보에 영향을 주었다. 1870년대부터 1890년대 사이에 영국의 상류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은 심미주의운동은 미의 절대성과 “예술을 위한 예술”(l'art pour l'art)이라는 개념으로, 이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미에 대한 관심으로 유행과 사치를 옹호한 심미주의 운동은 아르누보 양식이 좀 더 대중적으로 보급될 시장의 형성에 이바지했다[5].

아르누보의 예술은 각계각층, 모든 삶의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고, 또 삶 전체를 혁신하고자 하였다[6]. 비록 지나친 장식과 합리성의 결여로 인해 단기간에 막을 내렸으나 과거의 양식을 탈피하고 예술의 실용화의 시도를 통해 20세기 예술가들의 의식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2 아르누보의 특징

아르누보는 1900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이래로 약 100여 년 동안 여성적인 곡선과 식물의 덩굴무늬 그리고 선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7]. 하지만 아르누보는 공업적으로 대량생산된 상품과 취미의 타락에 저항하는 전 유럽적 운동으로 삶 전체를 개혁하는 포괄적인 운동으로 광범위한 다채로운 형태로 나타났[8].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 특징은 자연과 여성의 모티브와 유기적·추상적 곡선과 문양을 통한 상징적·환상적

표현, 역동적인 비대칭 구조, 인상주의의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조와 동양적 화려한 색채 사용에 있다. (이외에도 글래스고의 매킨토시와 빈 공방 미술가들의 작품에 보이는 기하학적이고 극도로 단순한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9].) 이와 같은 양식은 장인의 기술에 의해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과 새로운 재료들의 사용과 함께 새로운 근대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 아르누보 장신구의 전개 양식 분석

3.1 추상적, 구조적, 상징적 아르누보 양식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르누보 초기에 나타난 양식으로, C자 또는 S자의 유연하고 동적인 선들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내어 강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생동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새로운 감각 미의 창조, 즉 생명력이 없는 전통적인 형태에서부터 생물학적인 형태를, 딱딱하고 엄격한 형태로부터 흐르는 듯 유연하고 미끄러지는 듯 튀어 오르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처럼 자연물이 양식화되어 나타난 활기찬 선의 리듬은 아르누보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10].



[Fig. 1] Georges Fouquet Pendant, France, c.1899

[Fig. 2] Comte du Suau de la Croix Pendant, France, c.1900

(Art Nouveau Jewelry, Vivienne Becker, Thamas &Hudson)

3.2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양식

유럽 전반에 걸쳐서 전개된 양식으로 아르누보양식의 절정기에 해당된다. 초기의 아르누보 보다 더욱 섬세한 선으로 세기말적인 정서와 세련미를 가지는 양식이다 [11]. 자연물 중 주로 꽃을 주제로 하면서 유선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꽃의 유기적인 배열과 반복적인 사용으로 리듬감을 표현하고 있다[12]. 또한 식물 줄기 형태를 모티브로 취한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형태로 포도당초 무늬, 새싹, 꽃, 나무의 줄기와 함께 여인의 구불구불한 긴 머릿결의 형태 그리고 곤충과 동물 등의 유기적인 형태의 모티브가 대표적인 소재이다.



[Fig. 3] Eugène Grasset(designer) and Vever (maker) Brooch, France, c.1900
 [Fig. 4] René Lalique Pendant, France, c.1898-1900
 (Art Nouveau Jewelry, Vivienne Becker, Thamas&Hudson)

3.3 선적, 평면적 아르누보 양식

순수한 곡선의 장식미를 벗어나 직선적인 경향이 가미된 것으로 식물의 줄기와 같은 유기적인 선이 추상적 구성과 만나 기묘한 직선구조와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기하학적인 구성을 제시하였다[11].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발달하였고 프랑스의 리듬이 부드러운데 비해 영국과 프랑스의 리듬은 힘이 강한 형이 갑자기 대립해 합치는 다이내믹한 움직임들을 특징으로 한다[13].



[Fig. 5] RenéLalique Hair comb, France, c.1900
 [Fig. 6] Josef Hoffmann Hair comb, Austria, c.1905
 (Art Nouveau Jewelry, Vivienne Becker, Thamas &Hudson)

찰스 매킨토시, 요셉 호프만(Josef Hoffmann), 오토 바그너(Otto Wagner)가 대표적인 인물로 글래스고파(Glasgow School)의 길게 늘린 듯한 직선적인 스타일도 이에 속한다. 호프만은 매킨토시의 심미주의에 유용성과 단순성을 가미하여 디자인의 간소화를 가져왔다[14].

3.4 구성적, 기하학적인 아르누보양식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후기 아르누보 양식으로 순수한 곡선적인 장식미에서 벗어나 직선, 삼각형, 사각형, 사선, 원, 점 등의 기하학적인 선과 구도를 주로 활용하였다. 아르누보의 특성인 생동감과 우아함은 여전히 기본적인 특색으로 남아 있으나, 점차 기하학적으로 엄격해져가며 비대칭적인 곡선은 그 유기성을 상실해 가는 단계이다.



[Fig. 7] Theodor Fahrner Brooch, Germany, c.1905
 [Fig. 8] Franz Delavilla(design) and Oskar Dietrich (maker) Pendant, Austria, c.1911
 (Art Nouveau Jewelry, Vivienne Becker, Thamas &Hudson)

기계에 대한 찬양에서 비롯한 좀 더 힘차고 직선적인 요소가 강하게 도입되어 기능을 중시한 현대적 감각을 뚜렷하게 발전시켜나갔다. 큐비즘과 기능주의에 더욱 가까워지며 금과 은도금을 하는 산업제품과 마름모, 정육면체, 삼각형, 구에 기초한 장식이 들어간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다[14].

4. 장신구에 나타난 아르누보 조형성 분석

꽃과 유기적인 아르누보 양식은 아르누보 장신구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양식이다. 1900년에 보석세공가가 즐겨 사용한 모티브는 아칸서스나 오크 목재의 잔가지로 만든 화환, 꽃줄기 장식을 비롯하여 16세 시대에서 유래된 것이 많았다. 또한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망초, 붓꽃, 마거리트, 엉겅퀴, 겨우살이, 등나무 같은 식물의 전체 모습은 물론, 암술이나 꽃부리 등 각 요소에 대한 세부 묘사가 무척이나 감각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었다[15].

아르누보의 대표적 세공사인 프랑스의 르네 라리크(René Lalique)¹⁾의 장신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장인적 기술을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섬세한 표현을 담고 있다.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인 유기적인 곡선과 함께 마치 살아 있는 듯한 사실적인 묘사에서 꽃과 유기적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Fig. 9] RenéLalique Brooch Anemones, c. 1901(Ralique.com)

라리크가 제작한 아니모네 브로치 [Fig. 9]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통해 변화있는 안정감을 주면서 자연주의적 파

스텔 색채의 유리나 플리카주르(plique-à-jour)²⁾ 에나멜 기법으로 표현된 잎사귀가 더해져 은밀한 신비감을 연출하고 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잎사귀들의 섬세한 표현이 꽃의 단순화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였다. 또한 구부러진 하나의 줄기는 자연스럽게 중첩되어 꽃과 잎사귀의 공간감을 형성함으로써 시각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꽃의 중심에서 배경의 잎사귀로 이동시키고 있다.



[Fig. 10] RenéLalique Brooch Pensees, c.1900 (Ralique.com)

라리크가 제작한 팬지 브로치 [Fig. 10] 역시 아르누보 양식의 특징적인 비대칭적인 구조와 유동적인 곡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유로운 곡선은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세 개의 꽃들의 크기 변화와 섬세한 묘사 그리고 잎사귀와 곡선을 통한 다양한 크기의 공간 구성 등이 조화를 이루어 생동감 있는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Fig. 11] Paul-Gabriel Liénard Tiara Apple blossoms, c. 1900 (Christies.com)

- 1) 르네 라리크는 주로 꽃을 면밀히 자연물을 관찰하여 고도의 세련된 에나멜 작업과 유색보석, 유리, 뿔 등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장신구를 선보였다.
- 2) 플리카주르(plique-à-jour): 금속바탕판 없이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효과의 에나멜 기법

폴 가브리엘 리에날드가 제작한 사과꽃 티아라 [Fig. 11]는 동물의 뼈와 바로크 진주를 이용하여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마치 실제 사과나무 줄기를 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럽고 섬세한 표현을 볼 수 있다. 만발한 꽃의 형태는 전형적인 아르누보의 특색을 나타내며, 비대칭적인 형태에서도 양쪽의 전체적인 비례를 맞춰 부드러운 흐름을 유도한다. 아르누보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대칭적 구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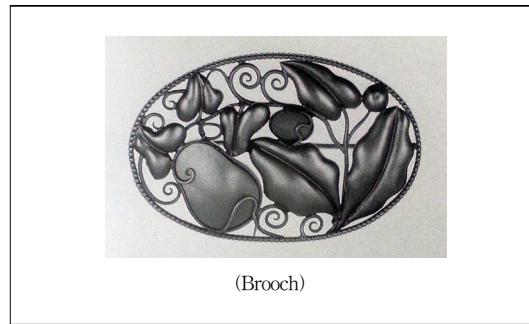


[Fig. 12] René Lalique Pendant, France, c. 1898-99
[Fig. 13] Gold Brooch, Germany, c. 1900 (Raliqie.com)

펜던트 [Fig. 12], 브로치 [Fig. 13]는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여인상을 금속의 재질로 리드미컬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유기적인 형태의 여인의 머리카락은 유동적이고ダイナミック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16]. 여성의 신비적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두 개의 펜던트에서 아르누보의 상징주의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아르누보 장신구에서 곡선미, 여성적 우아함이 강조된 자연주의적 장신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독일의 유겐스틸(Jugendstil)과 오스트리아의 세세션(Seession)는 다른 명칭으로 프랑스 아르누보 양식과는 구별되는 선적, 평면적 또는 구성학적, 기하학적 양식을 주로 보여준다. 독일의 독일공작연맹과 오스트리아의 빈공방 장신구는 자연주의와 동양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한 장식과 추상적 형태가 특징적이며 20세기 중반의 기능주의 양식에 기초가 되었다.

빈공방의 설립자인 요제프 호프만³⁾의 [Fig. 14], 브로치는 기하학적인 외곽 형태에 앞서기의 둥근 면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Fig. 14] Josef Hoffmann Brooch, Austria, c.1910 (Art Nouveau Jewelry, Vivienne Becker, Thamas &Hudson)

비슷한 형태의 잎들이 크기와 각도의 변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변화적 율동감을 느낄 수 있으며 비대칭적 구도에서 아르누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요제프 호프만이 주로 사용한 캐보션 형태의 보석은 유기적인 곡선들과 어우러져 공간을 구성하고 볼륨감 있는 앞서기들과 통일성을 이루어 미적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15] Koloman Moser Belt Buckle, Austria, c.1904 (Art Nouveau Jewelry, Vivienne Becker, Thamas &Hudson)

[Fig. 15]는 요제프 호프만과 함께 빈공방을 설립자한 콜로만 모제르의 벨트 버클이다. 우아한 곡선이 면으로 단순화되어 아르누보의 구성학적, 기하학적 양식을 잘

3)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1870-1956): 오스트리아 건축가, 디자이너. 유겐스틸의 유려한 장식에 매료되었다가 점차 기하학적으로 변화하였다. 1903년 빈공방을 세워 가구, 금속기, 유리, 도자기, 텍스타일 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보여주고 있다. 선을 통한 면의 분리는 안정적인 균형과 공간적인 일관성을 보여준다. 색상은 공간을 분할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단순한 형태에 색채를 통한 리듬감과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기적인 아르누보의 장신구에 비해 간결하게 표현되었으나 아르누보의 특징적인 곡선미와 우아함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5. 현대 장신구 디자인 분석

5.1 현대 장신구 디자인의 특성

현대 장신구에서도 아르누보의 장식과 기술력이 반영된 장신구를 찾아볼 수 있다. 아르누보의 수공예적 기술력과 화려한 장식성은 현대 파인 주얼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모티브와 조형성은 현대 예술 장신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장신구 브랜드에서도 아르누보의 장식성과 예술성 그리고 자연물을 소재로 한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장신구가 선보여지고 있다.

역사적 전환 시점에서 등장한 아르누보의 화려하고 섬세한 표현 그리고 장식은 사치스럽고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대중과 시장에 흡수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면서 점차 자리를 잃었다.

이것은 기능주의 대두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적합한 양식이었으며, 아르누보의 예술적 표현과 달리 급속한 산업과 경제의 성장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한 디자인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장신구 또한 생산이 용이한 단순한 형태와 질서정연한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산업 디자인 또는 공업 디자인과는 다르게 장신구는 필연적으로 수공예적 생산을 유지해왔다.

5.2 현대 장신구 조형성 비교 분석

현대 장신구는 파인 주얼리, 예물 주얼리, 패션 주얼리, 예술 장신구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의 파인 주얼리는 아르누보의 장신구가 갖는 화려함과 섬세한 기술력과 같이 수공예적 작업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19세기 아르누보 장신구의 조형적 특성과 국내 대표적 현대 파인 장신구 브랜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형적 원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대표적인 파인 주얼리 브랜드로는 켈프로스의 지오로(gioro), 앤저빈(Angevin), 루첨리(Lucenlee), 미코(Mico)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 브랜드 매장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파인 장신구 브랜드들 중 파인 장신구의 생산 비율이 높은 지오로와 앤저빈의 장신구들을 조형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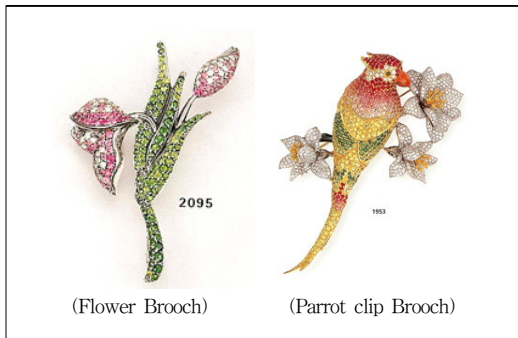
켈프로스 지오로(gioro)의 파인 주얼리는 자연물의 소재를 통해 디자인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색상의 귀보석에서부터 다양한 준보석들까지 다양한 시도의 장신구를 선보이고 있다. 아르누보 장신구의 섬세하고 사실적인 표현과는 달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여러 개의 보석 난집들로 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곡선은 보다 단조롭게 표현되고 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뿐만 아니라 아르누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산호, 바로크 진주 나아가 네추럴 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보석들이 사용되고 있다. 크기가 큰 중심보석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다양한 크기와 컷팅 형태의 보석들이 리드미컬하게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울동감과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 간결하게 표현한 곡선은 전체적인 시각의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크고 작은 공간을 구성함으로 변화를 유도한다. 전체적인 통일감은 보석의 색상을 통해 시각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르누보의 장신구는 에나멜 기법을 통해 섬세한 표현을 하였다면 지오로의 경우 보석을 섬세하게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Fig. 16] gioro Coral Brooch (<http://blog.naver.com/gioro84>)

[Fig. 17] gioro Flat Diamond Brooch (<http://blog.naver.com/gioro84>)

앤저빈(Angevin)의 파인 주얼리는 주 디자인 소재를 자연물을 통해 얻고 있으며, 다채로운 보석을 이용한 그라데이션 색채 효과를 통해 화려한 장신구를 선보이고 있다. 자연물에서 보여지는 유기적인 곡선과 곡면이 천연 보석의 파베 세팅 기술력과 더해져 사실적인 형태를 표현한다. 아르누보의 장신구의 주된 소재로 사용되었던 꽃과 새 그리고 곤충을 소재로 한 장신구가 주를 이뤄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나 고가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진주의 사용에서는 아르누보 장신구의 다양한 저가 보석 또는 에나멜 기법의 활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크기가 큰 중심보석을 사용하기보다는 유사한 색상의 작은 보석들을 빈틈없이 세팅하여 하나의 전체로 보여지는 시각적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작은 보석들을 여러 개 배치시킴으로서 반복적인 울동감과 색채의 변화를 통한 공간감을 찾아볼 수 있다. 아르누보의 장신구에서도 보여지는 비대칭적 구도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나 유기적인 곡선은 아르누보의 장신구보다는 간결하게 표현되어 차이점을 갖는다. 섬세한 기술력을 선보인 아르누보는 세부적인 묘사에 집중하였다면 국내 앤저빈의 장신구는 전체적인 색채의 조화를 위한 세팅 기술력에서 집중하고 있다.



[Fig. 1] Angevin Flower Brooch
(www.angevin.net)

[Fig. 1] Angevin Parrot clip Brooch
(www.angevin.net)

6. 결론

19세기 아르누보는 짧지만 강렬하였고 장신구 디자인 역사에 새로운 시작의 전환기가 되었다. 20세기 합리적

<Table 1> Art Nouveau & Modern Jewelry of Korea Comparison

Categories	Art Nouveau Jewelry	Gembros Gioro	Angevin
Motifs	flower, plant stem, female	flowers	flower, animals, insect
Formativeness	organic curve, feminine, asymmetrical structure	simple curve, classy, asymmetrical structure	organic curved surface, realistic, asymmetrical structure
Color expression	enamel, various stones	achromatic+chromatic color gem stones	chromatic color gem stones
Technical skills	craftsmanship technique	gem stones processing technique	gem stones craftsmanship technique

인 생산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디자인 산업을 시작으로 현대의 장신구 디자인은 화려함은 갖추었으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사고와 철학 등이 배제된 장신구 디자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장신구는 하나의 예술분야로 시대적 흐름과 특징이 담겨야하며 디자이너 또는 작가의 사고가 장신구로 표출되어 문화와 감성을 형성해야 한다.

현대의 장신구 특히 산업 장신구는 조형적 요소를 중시하기보다는 재료의 가치와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설계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20세기를 시작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신구는 대량생산을 목표로 형태는 간결화 되었으며, 보편적 기호를 강조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록 아르누보의 장신구가 생산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긴 하였지만 현대에는 이를 극복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산업의 발달을 이루었다고 본다. 소비자들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에 의해 장신구는 더 이상 재화의 가치로서 인식되어지기 보다는 본인의 개성과 자아를 표출하는 요소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아르누보의 다양한 모티프의 활용과 화려한 색상과 곡선미는 국가의 문화적 특징과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같은 양식 안에서도 문화를 통해 다른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의 장신구 브랜드 중에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브랜드의 이념과 개성이 잘 반영된 브랜드들이 많다. 하지만 국내 산업 장신구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해 소비자들의 기호와 트렌드에 집중한다. 국내 두 개의 브랜드만으로 국내 장신구 디자인의 경향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아르누보의 장신구와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 장신구 브랜드를 비교 분석을 통해 얻은 국내 현대 장신구의 특징은 단순히 보석과 난잡으로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누보의 장신구는 다양한 조형성을 곡선과 곡면 그리고 다양한 보석과 재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아르누보의 장신구가 이와 같이 다양한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였던 것은 시대적 특징과 사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여긴다. 현대 장신구 디자인은 아르누보와 같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철학과 역사를 통해 디자인을 모색하였을 때 보다 더 개성적이며 차별화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조형적 요소와 원리를 기초로 한 디자인을 통해 심미적인 가치와 예술적 감흥이 더해졌을 때 비로써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장신구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 국내 장신구 예술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REFERENCES

[1] Jil Jangti, Rorang Usae, Seblin Jub, Shin Sunglim translate, *Le Symbolisme et de l'Art Nouveau*, Changhae ABC Book, p. 24. 2002.

[2] Karin Sagner, Sim Huiseop translate, *Die kunst des Ugendstil*, misul munhwa, p. 10. 2007.

[3] Karin Sagner, Sim Huiseop translate, *Die kunst des Ugendstil*, misul munhwa, p. 22. 2007.

[4] Alastair Duncan, Ko Yeongran translate, *Art Nouveau*, Siongart, pp. 15-18, 1998.

[5] Stephen Escrit, Jung Mujeong translate, *Art Nouvea*, Hangilart, pp. 49~52. 2002

[6] Karin Sagner, Sim Huiseop translate, *Die kunst des Ugendstil*, misul munhwa, p. 11. 2007

[7] Stephen Escrit, Jung Mujeong translate, *Art Nouvea*, Hangilart,, p .4. 2002.

[8] Karin Sagner, Sim Huiseop translate, *Die kunst des Ugendstil*, misul munhwa, pp. 7-8. 2007.

[9] Stephen Escrit, Jung Mujeong translate, *Art Nouvea*, Hangilart, p. 4. 2002.

[10] Kim Juyeon, *A Study of Ceramic Models of Plant through Art Nouveau Sty*, MSc thesis, Ewha womans Univ, p. 8, 2002.

[11] Kim Eunjeong, *A Study of formative character of Art Nouveau Through the works of Rene Laique, Emile Galle, Louis Comfort Tiffany, Victor Horta*, *Journal of Science of Art & Design*, Vol.11 No.-, p. 14, 2007.

[12] Choi Gyeongok, *The body art research which applies art nouveau pattern images: Centering around body painting work production*, PhD thesis, Sunshin womans Univ, pp. 16-17, 2009.

[13] Choi Gyeongok, *The body art research which applies art nouveau pattern images: Centering around body painting work production*, PhD thesis, Sunshin womans Univ, p. 20, 2009.

[14] Kim Eunjeong, *A Study of formative character of Art Nouveau Through the works of Rene Laique, Emile Galle, Louis Comfort Tiffany, Victor Horta*, *Journal of Science of Art & Design*, Vol.11 No.-, p 15, 2007

[15] Alastair Duncan, Ko Yeongran translate, *Art Nouveau*, Siongart, pp. 151~157, 1998

[16] Choi Gyeongok, *The body art research which applies art nouveau pattern images: Centering around body painting work production*, PhD thesis, Sunshin womans Univ, p. 18, 2009.

박지원(Park, Ji Won)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학사)
- 2009년 9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금속디자인과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디자인과 (박사과정)
- 2011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금속공예, 장신구
- E-Mail : soup0926@naver.com

박 승 철(Park, Seung Chul)



- 1987년 2월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학사)
- 1997년 8월 :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석사)
- 2009년 2월: : 러시아헤르전 대학교 박사과정수료
- 1997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주얼리전공 교수

- 관심분야 : 귀금속공예, 장신구디자인
- E-Mail : scpark@kongju.ac.kr